

금환기봉 (작자 미상)

"소저가 이제 벼슬이 공경에 올라 위엄이 사해에 진동하시매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오마는, 첩 등의 이목이 외람하여 소저가 재상의 위풍이 당당함에도 매번 부르기를 '상공(相公)'이라 하지 않고 '소저(小姐)'라 하오니..."

시비 영춘의 말 — 주인(장 소저)이 남복으로 벼슬에 올랐지만 자신들은 여전히 '소저'라 부르고 있음을 지적.

20번 연계: 영춘이 주인을 '상공'이 아닌 '소저'로 부른 것 = 진심에 따른 행동을 주인이 존중했다는 근거.

"이런 기회에 진실을 전달하여, 검은 모자를 화관으로 바꾸고 도포와 띠를 녹의홍상으로 바꾸어 규방의 아름다운 여자 되시면, 이 또한 기특한 이름이 되리니..."

영춘의 조언 핵심 — 남복 입기를 끝내고 여성임을 밝히려는 적극적 개진. 시비가 주인의 중대 결정에 개입하는 장면.

고전소설의 '남복 모티프': 여성이 남장으로 사회적 성취를 이룬 뒤 정체성을 밝히는 전형적 구조.

학사가 듣기를 다하매 밝게 깨달아 서안을 치며 차탄 왈, "어질다, 너의 소견이여. 밝고 높음이 오히려 내가 미치지 못하리로다..."

장 소저(학사)가 영춘의 말에 깨달음을 얻고 오히려 칭찬 — 신분(주인-시비)보다 진심을 중시하는 주종 관계.

21번 <보기> 직결: '지위나 규범에 얽매이기보다는 서로의 진심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경직되지 않은 주종 관계'의 실증 장면.

"...일조에 건곤이 바뀌어 옥당 대신이 심규 아녀자가 되니 어찌 비감하지 아니하리오. 칠 년 공명이 속절없이 되었도다."

깨달으면서도 남은 애석함 — 7년간 쌓은 공명(사회적 성취)을 내려놓아야 하는 데 대한 비감.

20번 ㉠ 함정 주의: [A]·[B] '모두'가 윤리적 의무 vs 성취의 갈등인지는 본문 대조 필수. 각 부분에서 누가·무엇을 고민하는지 분리해서 읽을 것.

작품 정리

갈래	고전소설(여성 영웅담·남복 모티프)
성격	전기적, 유교적
작가	작자 미상
시점/화자	전지적 작가 시점
주제	남복으로 이룬 여성의 사회적 성취와 정체성 회복의 갈등, 진심으로 맺어진 주종 관계

특징

- 여성 주인공의 남복 입기(남장) 모티프로 신분·성별 규범과 개인 성취의 긴장을 다룸
- 시비 영춘이 조력자를 넘어 주인의 중대 결정에 개입하는 능동적 인물로 그려짐
- 대화 중심 전개로 인물의 내면 갈등(공명 vs 규방 복귀)을 드러냄

등장인물

- 장 소저(학사): 남복으로 과거 급제·공경에 오른 여성. 정체 회복을 두고 갈등
- 영춘: 장 소저의 시비. 진심으로 조언하며 결정에 개입하는 조력자
- 상(임금): 장 소저를 인재로 아끼며 혼인을 명해 갈등의 계기를 제공

구성

- 발단: 상이 장 소저에게 공주와의 혼인을 명함
- 전개: 당황한 장 소저가 시비 영춘과 상의
- 절정: 영춘이 여성 정체 회복을 조언, 장 소저가 깨달음
- (수록 부분 이후) 정체를 밝히는 방향으로 전환

전체 줄거리

여성인 장 소저는 남복을 입고 과거에 급제하여 7년간 벼슬이 공경에 이른다. 임금이 공주와의 혼인을 명하자 정체가 드러날 위기에서 시비 영춘과 상 의하고, 영춘은 지금이 진실을 밝힐 기회라며 여성으로 돌아갈 것을 조언한다. 장 소저는 그 소견을 칭찬하며 받아들이면서도 7년 공명이 속절없이 됨을 탄식한다.

